



천지개벽해도 ‘사람’이 경쟁력이다!

세계는 국경 없는 전쟁터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국경이나 국가 간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진다. 지구촌이 디지털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덜 긴장될지 모르지만,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 속에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기업들이 사라져 갔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쟁력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전미옥 마이스토리 대표

실패와 도전을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두렵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일까? 안다면 두렵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알파고를 이길 기사는 없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중국의 커제도 졌다. 인류 역사상 알파고를 이긴 적이 있는 유일한 인간은 이 세대가 될 것 같다. 전 세계에 화제가 된 알파고의 위력으로 산업 전반의 지능화가 더욱 우리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온 것을 체감한 사람들에게 세계의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알렸다.

과학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과 만나면서 산업 전반이 지능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존의 가치관과 시스템이 무너지고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불

가피하다. 그냥 쉽게 로봇의사에 로봇간호사, 로봇 무용수가 머지않아 우리를 위해 곁에 존재할 것이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예전 같으면 공상이나 망상의 수준으로 보이는 생각들이 눈앞에 구현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진화할지 우리는 예측만 할 뿐 전부 알 수는 없다. 한 가지, 앞으로 많은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서 혁신을 통한 경쟁 우위 선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현재 그 선두주자가 엘런 머스크다. 그는 우주선 개발회사 스페이스 엑스, 전기자동차회사 테슬라 모터스의 경영자로 ‘미래에 가장 먼저 도착한 지구



인'이라는 별명답게 현재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생각에 한계가 없는 인물이다. 나사의 우주정거장까지 화물을 배달하고, 첨단기술의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일은 일부분이다. 사람이 화성에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기술개발 중에 있고, 2013년엔 진공 튜브 속을 시속 1,300km로 달리는 캡슐 형태의 기차인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제안해서 여러 나라가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내 잠재능력은 나도 다 알 수 없다. 그 감춰진 능력을 다 펴보지도 않고 문을 닫지 말자. 성공한 사람들의 다수는 해볼 만한 일을 도전했다기보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황당무계하고 무모한 일을 그들은 열정과 자신감으로 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상상 이상의 세상이 올 것인데, '그건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이 짧음을 겸손하게 받아드릴 때, 한계는 점점 영역을 넓힐 것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최신 프로그램으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구식 컴퓨터가 될 뿐이다. 지혜, 지식, 정보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샘솟고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려면 실패를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공감대가 기업문화로 자리 잡을 때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세진다.

'사람'의 가치에 주목해야 이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이 통하지 않을



만큼 사회가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인간적인 면에 대한 고민과 각성이 필요해질 것이다. 지금의 산업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하고 인공지능 덕분에 맞춤형 교육 기술이 확산되면 인문학과 휴머니즘도 과학기술과 함께 중요해진다.

일찍부터 IT 기업들이 기술에 못지않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살아생전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젊은 기업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정보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구글이 상당수의 직원을 인문학 전공자로 뽑는 건 IT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고 인간의 역사를 통찰하는 인문학의 관심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 2017'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명공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첨단기술이 인류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간의 고유성과 독창성,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기술 개발을 경고한 것이다.

이 세상에 100퍼센트 새로운 것은 별로 없다. 두뇌에 저장된 수많은 지식이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디선가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식과 만났을 때 창조적 아이디어가 된다.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다른 분야까지도 폭넓게 아우를 때 경쟁력이 생긴다.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언제나 '기술'보다 '사람'에 가치를

를 두는 기술개발이고 기업 경영일 때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다. 기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람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TTA**